

싸바이다? 안녕하세요... 라오스에서 문안드립니다.

어느덧 2025년이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간 라오스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라오스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인도차이나를 위한 365 기도』

인도차이나 5개국을 공동연구하기 위해 1년 전 첫걸음을 땀 인도차이나 지역연구회(이하 인지연)가 1년간의 작업으로 『인도차이나를 위한 365 기도』 책자를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인도차이나 5개국(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중요한 국가정보와 함께 이 정보들에 기반한 기도 제목들을 담고 있어, 이 책을 통하여 인도차이나 5개국의 국가정보를 섭렵하면서 1년 동안 기도로 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인지연의 초대회장으로 지난 1년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 인도차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날마다 가슴이 벅차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행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렘33:3)

불발탄 피해 장애인의 집을 수리하다.

리(여, 37세)는 지난 1996년(당시 8살)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폭탄껍질을 주우러 들로 나갔습니다. 고철을 모아 고물상에 팔면 용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땅 속에 파묻혀 있던 불발탄을 파내던 중 강한 폭발이 일어났고, 그 파편들이 복부와 다리를 강타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간과 폐 일부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왼쪽 다리 또한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절단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4-5년이 지나 어느 정도 후유증에서 벗어날 때쯤 안타깝게도 왼쪽 다리에 서서히 괴사증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고 오히려 괴사가 허벅지 부위까지 진행되어 결국 지난 2005년에 왼쪽 허벅지 아래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는 집에서 천을 짜서 얻는 얼마 되지 않는 수입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잠시 동거하던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름: 떼, 11세)을 홀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 모자에게는 소박하지만 절실한 바람이 있는데 바로 집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벽과 문이 없어 비바람이 부는 날이면 여지없이 빗물이 바닥을 적시고, 밤에는 무서워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엄마(리)와 아들(떼)

이 가정의 형편을 주변의 여러 분들에게 나누었더니 다행히 한 분이 집수리를 위해 재정을 보태주시고, 또 한 분의 건축 전문가가 동행하게 해주셔서 3일간의 작업을 거쳐 집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공사를 위해 총 \$1,500 정도의 재정이 들었는데 앞으로 화장실에 양변기를 설치하고, 바닥에 장판이나 타일을 까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수리 전



수리 후

학교 보건교사 역량강화 훈련

라오스의 각 학교마다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보건교사가 있지만 어떤 훈련이나 소양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학교 보건교사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후아판 위앙싸이에 있는 세 학교(소수민족학교, 기술직업학교, 위앙싸이 중고등학교)의 보건교사 총 11명이 5일 동안 집중 훈련을 받았습니다.

후아판 적십자사에 근무하는 전문 의료인을 강사로 초청해 간단한 건강 체크 방법, 혈압계 사용법, 하임리히법, 심폐소생술, 골절된 다리 및 팔 부목 보호대 만들기 등 보건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수업하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학교의 보건교사들이 이런 훈련을 필요로 하고 있어 매년 한 차례씩 진행하길 원합니다.



심폐소생술 실습



소수민족학교 위치

겨울옷 =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후아판의 해발 1,500미터의 고산지역에 사는 이들에게 이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영하의 기온까지 떨어지지는 않지만 영상 5-7도만 되어도 이들은 혹독한 추위를 느낍니다. 집, 학교 등 모든 곳에 난방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이지요.



매일 아침 선생님은 운동장 한 구석에 모닥불을 피우고 학생들은 맞이합니다(위 사진). 이 모닥불은 겨울옷이 없는 학생들이 매일 아침 선생님에게서 받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겨울옷 나눔입니다. 5년 전부터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헌 겨울옷을 나누고 있는데, 올 해에도 잊지 않고 겨울옷을 보내주신 고마운 분들 덕분에 겨울옷 나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녹여줄 따뜻한 겨울옷은 성탄의 계절 12월에 그들이 받게 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입니다. 겨울옷과 함께 따스한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이 지면을 빌어 겨울옷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쑥쑥완 크리스마스(메리 크리스마스 !!!)

단디학교에 입구에 성탄 추리를 세우며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라오스의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감격적인 섬김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탄, 행복한 새 해 맞이하세요.

2025년 11월의 끝자락에
라오스에서 차명열, 이순아 올림

※ 아람 제목

1. 2025년 한 해 동안 기쁨으로 라오스를 섬길 수 있는 은혜와 건강 주심에 감사하며, 새 해 2026년에도 더 큰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2. 초등학교 허가를 받기 위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 했지만. 교실이 정식규격에 비해 좁고 일반 주택 건물이라는 이유로 1차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12월에 재심사를 받게 되는데 2차 심사에서는 합격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3. 인도차이나 지역연구회 사역이 협력사역의 좋은 모델이 되게 하시며, 『인도차이나 365』 책자를 통한 기도운동이 강하게 일어나 인도차이나 5개국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도록...

